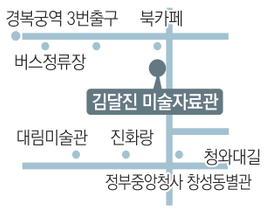
메트로 문화&사람

〈15〉 김달진미술자료관 김달진 씨

‘숨은 미술史’ 38년간 차곡차곡 모았지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전시회 팸플릿을 모으려고 허름한 가방을 메고 종로구 인사동, 강남구 동숭동 청담동을 돌았어요. ‘금요일의 사나이’라고 불렸죠.” 미술자료전문가 김달진(53) 씨는 미술계에서 ‘자료=김달진’으로 통한다. 평론가, 대학교수, 문화부 기자가 작가의 약력 연보 연표를 확인할 때면 김 씨를 찾을 정도. 그의 수집광은 고교 시절 여원, 여성, 주부생활 등 여성지에 실린 ‘이달의 명화’를 오려 모으던 습관에서 출발했다. 운수회사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을 빼놓으면 자료 수집만 38년이다. 지난해 5월에는 종로구 통의동에 김달진미술자료관을 열었다.



김달진미술자료관은

특징	단행본·작가화집 6500여 권 미술 정기간행물 100여 종, 2500여 권 전시회 팸플릿 1만여 점 작가파일 280여 권
개관시간	월 수 금요일 오후 2~6시 (예약 필수)
입장료	1000원
연락처	02-730-6214~5

1900년 이후 팸플릿-화집 등 2만점 빼곡
“자료 없어 잊혀지는 작가 많아 안타까워”

김달진 씨가 서가에서 유명 작가의 화보집을 펼쳐 보이며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현대미술 자료 2만여 점을 모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자신의 이름을 딴 김달진미술자료관을 열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미술전시회 팸플릿 1만여 점

이 자료관은 국민대 총동창회관 지하에 있다. 60여 평의 공간에 1900년 이후 현대미술 자료 2만여 점이 빼곡하다.

최초의 원색 도판 화집인 ‘오지호 김주경 2인화집’(1938년)을 비롯해 이중섭 작품전 팸플릿(1955년), 제1회 현대미술작가초대전(1953년) 팸플릿 등 희귀 자료가 대부분이다.

단행본 및 작가화집 6500여 권을 비롯해 정기간행물 100여 종 2500여 권, 전시회 팸플릿 1만여 점, 신문 자료, 작가파일 280여 권 등을 비치했다.

미술잡지 8종 2만5000여 건, 폐간된 잡지 16종 4000여 건의 기사 색인, 2600여 명의 인명 사전을 망라한 데이터베이스는 김 씨의 자랑거리.

“누군가가 억지로 시켰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겠죠. 좋아서 시작했고 그게 직업이 돼서 인정까지 받았으니 전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할 천직이겠죠.”

2002년 창간한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에는 전시회 소식뿐 아니라 해외 미술 사조, 한국 미술의 좌표 등 화가와 평론가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담는다.

일간지 20여 가지를 살펴보고 미술 관련 자료를 매일 올리는 ‘달진닷컴(www.daljin.com)’도 미술 분야 사이트에선 상위권을 차지한다.

“자료관에는 논문을 쓰려는 미술 전공 학생이 주로 찾아옵니다. 국내 현대미술은 자료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모은 자료가 미술학자의 논문 기초 자료로 쓰이니 이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 일당 4500원 일용직으로 시작

경북 포항의 운수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1978년 전시잡지인 월간 ‘전시계’의 사장을 만나 자료 수집에 대한 열정을 알렸다.

이 회사 직원으로 미술계에 첫발을 들여놓았고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14년간 근무했다. 처음엔 일당 4500원짜리 일용직. 1987년 별정직 7급으로 격상됐다.

3년 계약이 끝난 뒤 기능직 10급으로 다시 낮아졌다. 1996년에는 가나아트센터로 옮겨 2001년까지 자료실을 책임졌다.

만학으로 틈틈이 배움의 길도 이어 갔다. 성균관대 사서교육원과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를 마쳤다.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서 미술자료실 관련 주제로 석사학위도 받았다.

“일본에는 아트도큐멘테이션연구회 등 예술자료학회가 있을 정도로 자료 보관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앞으로는 작가별 자료관리를 해주고 싶어요. 자료가 없어져서 잊혀지는 작가와 작품이 너무 많아요.”

그는 습기가 차는 지하의 자료관을 인사동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잘못 표기된 글을 지적하거나 바로잡는 일을 하다 보면 일부 인사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너무 편집광적인 게 아니냐, 두고 보자는 등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술사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잖아요.”

딸 영나(24) 씨는 만화가로 활동 중이고 아들 정현(21) 씨는 대학에서 미술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잡지사에 근무하던 시절 만난 아내는 든든한 후견인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청계천 복원후 동식물 5.8배 늘었다

2003년 98종→2007년 573종

서울 청계천의 동식물이 복원 전인 2003년 98종에서 지난해 573종으로 5.8배 늘었다. 지난해(421종)에 비해서도 152종(36.1%)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계천 생태문화지도’를 최근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단이 청계천 복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생태 모니터링 결과 청계천 복원 뒤 가장 큰 변화는 식물과 곤충의 증가였다.

식물은 별꽃, 뽀리뱅이, 익모초, 개갓냉이 등 312종으로 2003년(62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곤충은 2006년 46종에서 지난해 174종으로 늘었고 청계천 하류에서는 서울시 보호종인 풀무치도 발견됐다.

어류는 19종이 발견돼 2003년 4종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2006년(23종)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다. 시민들이 방류했던 잉붕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종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청계천 동식물 현황 (단위: 종)

구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식물	62	156	268	312
어류	4	15	23	19
조류	6	34	33	29
대형무척추동물	5	22	39	26
육상곤충	15	84	46	174
포유류	2	3	4	4
양서·파충류	4	2	8	9
계	98	316	421	573

청계천은 2005년 10월 복원. 자료: 서울시설공단

조류로는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서울시 보호종인 박새와 제비가 관찰됐다. 양서·파충류로는 줄장지뱀이 지난해 처음 발견됐다. 2006년에 이어 누룩뱀과 서울시 보호종인 두꺼비 등도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해 하천 복원의 효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공단이 운영하는 생태학습 체험교실에 참가하면 청계천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 내달 택지 61만m² 공급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는 3월 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터 49만 m²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66만7000m²의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영종하늘도시에서도 다음 달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저밀도 85m² 초과) 12만1000m²를 포함해 모두 28만7000m²의 택지가 올해 공급된다.

청라지구에서는 국제업무타운 터 공급에 이어 올 7~9월에는 14만 m²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용지가, 10~12월에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 및 일반상업용지 등 3만7000m²의 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다음 달 중으로 공동주택용지 외에 국민임대주택용지(60m² 이하) 1만8000m²가, 하반기에는 14만8000m²의 이주자 택지가 각각 공급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경기 영재학급-교육원 학생 4533명 늘려

경기도교육청은 영재를 일찍 발굴하기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 및 분야를 크게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고교 내 영재학급과 교육청 및 직속기관, 대학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을 지난해 7507명에서 올해 1만2040명으로 늘릴 계획.

이를 위해 영재학급을 지난해 112개교 237개 반에서 올해 206개교 390개 반으로, 영재교육원은 지난해 142곳 431개 반에서 올해 240곳 601개 반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가운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0.42%에서 올해 0.64%로 높아진다.

도교육청은 수학, 과학, 예능, 정보로 나뉘는 영재교육 분야에 올해 언어, 발명 분야를 추가한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KAIST와는 협조체계를 만들고 사이버영재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과학영재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 예산을 지난해 38억2000여만 원에서 올해 56억3000여만 원으로 47.4% 늘렸다.

도교육청은 “2010년까지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을 전체의 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단신

서초구 국공유지 50만m² 주민에 임대

서울 서초구는 토지소유권이 서초구나 서울시, 국가에 있는 구내 50만7915m²의 국공유지를 경작 등의 용도로 주민에게 임대한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놀리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02-570-6429

소사지구에 주택 3만4000가구 건설

경기 부천시는 2020년까지 소사지구를 3만4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자족도시로 개발한다. 전체 개발면적(250만 m²)에서 주거지가 150만8000m²(60.2%)로 가장 많다. 공동주택 125만m²(50.2%)와 주상복합 22만2632m²(8.9%), 단독주택 2만7512m²(1.1%)가 들어선다. 상업지역은 8만9851m²(3.6%)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 나머지는 도로 44만4193m²(17.7%), 공원 21만785m²(8.4%), 녹지 11만9598m²(4.8%), 학교 9만1848m²(3.7%), 공공시설 3만9841m²(1.6%)이다. 계획안을 4월 공고하고 공청회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한 뒤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방침.

강남구청 공무원 태안 봉사활동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과 헝가리,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직원 등 500여 명이 23일 충남 태안군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름 제거 등 봉사활동을 했다. 강남구는 이날 직원들이 모은 성금 1300만 원을 태안군에 전달했다.